

넥센타이어, 유럽시장 공략 성공적

3/4분기 영업이익 525억원 656% 폭증 ... 국내외에서 신차용 수요 급증

넥센타이어가 유럽시장 공략을 통해 원/달러 환율의 한파를 피해 사상 최고의 영업실적을 달성했다.

넥센타이어는 2009년 3/4분기 영업이익이 52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56% 증가했다고 10월26일 발표했다. 매출액은 2443억8000만원으로 29%, 당기순이익은 395억3000만원으로 508% 증가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이익률은 21%로 2/4분기(20%)와 시장기대치(16%)를 훨씬 뛰어넘어 타이어 3사 중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파운드화의 상대적 강세로 고수익을 거두었다”며 “품질과 성능 면에서 국내외 바이어들의 호평이 판매 호조와 높은 수익성으로 이어지고 있고, 국내 완성차기업으로부터 신차 타이어 납품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2010년 전망도 밝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종만 넥센타이어 대표는 “2009년 들어 내수 판매 급증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틈새시장을 적극 공략한 점이 이익률을 높이는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넥센타이어는 최근 창녕에 1조원을 들어 제2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세계 10위권의 타이어 생산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0/26>